

대학생의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 관계의 질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조 인 형(청주종합사회복지관) · 김 영 희(충북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교제 변인, 애착유형과 데이트 관계 질의 영향력을 폭력의 피해와 가해로 나누어 살펴보고 데이트 폭력이 부부 폭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대학생의 데이트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4개 대학교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교제변인은 성, 연령, 교제기간 지속정도, 성관계 유무, 교제중요도로 측정하였으며, 애착유형은 Hazan과 Shaver(1987)가 개발한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로, 데이트 관계의 질은 Rusbult(1980)의 Relationship Questionnaire로, 데이트 폭력은 Shepard와 Campbell(1992)의 Abusive Behavior Inventory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 관계의 질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회피 애착유형을 보이는 대학생이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으며, 데이트 중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언어적으로 모욕하고 불합리한 질투심으로 대하며, 위협이나 협박과 같은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몰입하며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 불안 애착유형은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심리적 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회피 애착유형은 신체적 폭력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폭력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 애착일수록 신체적 폭력의 가해경험이 더 많고,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보다 심리적 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데이트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애착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불안 애착유형의 주요특성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자신이 감정을 확인 받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기간 중에 갈등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갈등해결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성에 따른 폭력 양상과 폭력 피해·가해경험이 다르므로 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혀주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피해·가해의 차이와 신체적·심리적 폭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피해 집단과 가해 집단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